

일본건설산업의 경기 및 정책동향 : 제16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의 의제를 중심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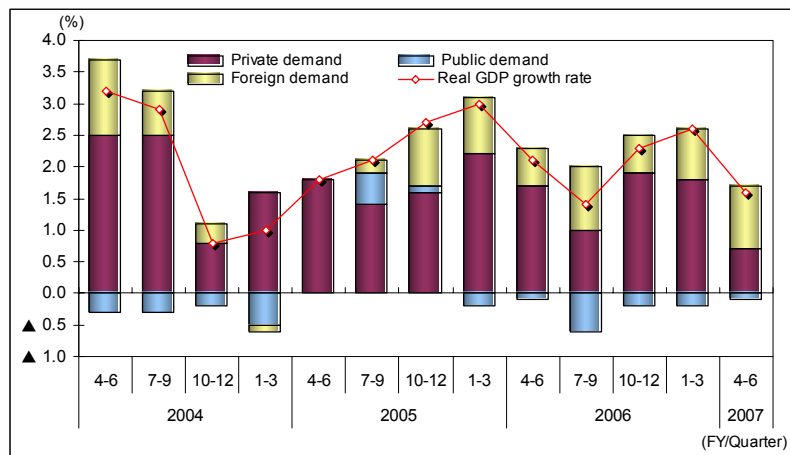
- 일본 경제는 2002년 이래 회복단계에 있으며, 버블붕괴로 인한 장기 침체 이후에 가장 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- 이 같은 경기회복세는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들의 채산성 증가 및 설비투자의 증가와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인한 구매력 증가 등 민간부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- 그러나 정부부문의 건설투자가 9년째 감소하고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기준이 강화되고 인구 고령화로 주택구매 수요가 감소하여, 2007년 건설투자는 3%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, 2008년 건설투자는 0.8% 증가에 그치는 등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한 상황임
-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과당수주 경쟁으로 건설업체들이 도산하고 있으며, 비주거용 건설투자만이 6년째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음
-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입찰제도와 하도급 시스템을 투명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.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대형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주물량 중심에서 수익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취하는 한편 해외건설의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음
-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'1일 응답'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며,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안됨

1.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● 일본 경제동향

- 실질GDP 성장률이 2004년에 2.4%, 2005년에 2.1%에 이르는 등 일본 경제는 2002년 이래 회복단계에 있으며, 버블붕괴로 인한 장기 침체 이후 가장 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- 일본의 기업들은 버블붕괴 이후 임원의 수를 줄이고, 유휴 설비를 없애고, 이자 부담 요인을 제거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음. 그 결과 매출액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었음
 - 2007년의 경상이익은 12% 증가하였으며, 20분기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

[그림 1]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성장요인 분해



- 이에 따라 자본지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버블붕괴의 경험을 감안하여 보유 현금 수준으로 자본지출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향상이 예상됨
- 기업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음
 - 실업률은 2006년에 4.1%에서 2007년 2분기에는 3.8%로 낮아졌으며, 1998년 이후 9년 만에 3%대로 회복됨
 - 유효 일자리 창출률은 1.06%로 6분기째 1%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
- 고용사정은 개선되었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시장에 진입하고, 일용직 및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임금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

- 원유 및 화석연료, 그리고 섬유의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 물가는 2007년 2분기에 2.3%의 연 증가율을 보였으나, 2006년 4월의 의료비 인하와 무선통신요금 인하 등으로 소비자 물가는 2007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- 일본은행은 2006년 3월에 화폐를 계속 증발(増發)하는 물량완화책을 중단하였음. 2007년 2월에 금리를 인상하였는데 2006년 7월에 0% 금리정책을 포기한 이래 두 번째 금리 인상이었으며, 그 결과 단기금리는 약간 상승하고 장기금리는 변하지 않았음
- 국제수지를 보면, 2007년 2분기에 수출은 0.9% 증가하였으며 9분기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.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수입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임
- 2007년 2분기에 4조 6,400억 엔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. 세계경기의 호조로 무역수지와 소득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며, 2007년 상반기는 12조 5,000억 엔의 경상수지를 기록하여 신기록을 갱신하였음

● 일본 경제전망

- 2007년까지는 기업부문의 수익성 개선과 이로 인한 자본지출의 증가로 경기상승세가 이어졌다면, 향후에는 고용여건 개선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민간부문의 소비 증가와 같은 가계부문이 주도하는 경기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
- 일본의 대내적 요인들은 대부분 호재들이나 세계경기 및 미국경기에 대한 우려감과 원유가격 상승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음
- 2008년의 일본 경제성장률은 2.2%로 전망됨. 민간최종소비 1.9%, 민간기업의 자본지출 4.8%, 수출 7.3%, 정부최종소비 1.0%, 민간주택건설이 3.4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 그러나 공공투자는 8.4% 감소하여 10년째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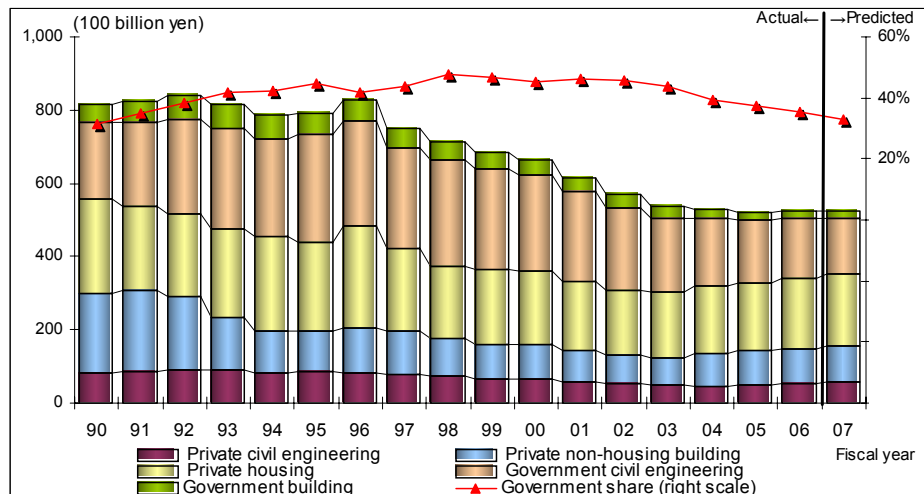
2. 일본의 건설경제 동향 및 전망

- 건설투자는 2007 회계연도에 3% 감소할 것으로 보임. 정부의 건설투자는 7.5% 감소할

것으로 보이며, 민간의 주택투자는 건축기준 강화로 인하여 4.5% 감소할 것으로 보임

- 단, 민간의 비주택투자(민간 비주거용 건물투자 + 민간 토목투자)는 4.1% 증가할 것으로 보임

【그림 2】 일본의 건설투자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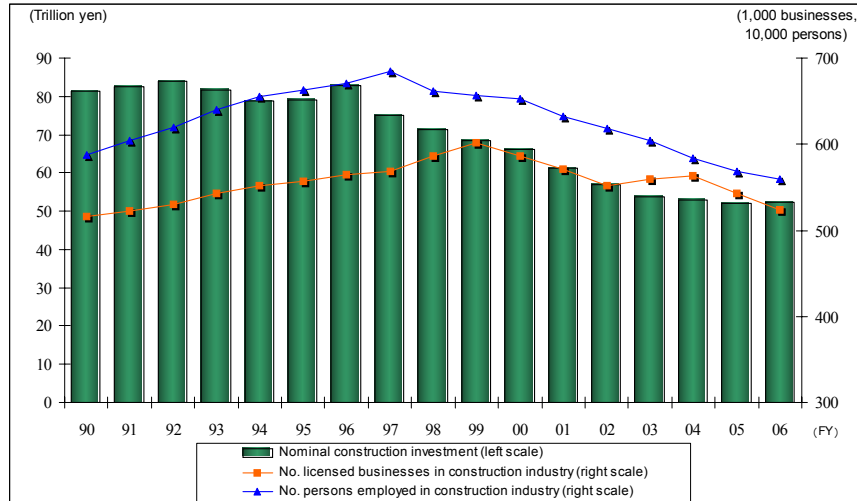


- 2008년에는 건설투자가 0.8% 증가할 것으로 보임. 정부의 건설투자는 8.2% 감소하나, 민간의 주택투자는 기술적 반등으로 5.9% 증가, 민간의 비주택투자는 민간의 토목투자가 3.1% 증가, 민간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5.7%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4.8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중앙정부의 확정예산을 보면 중앙정부의 건설투자는 3.5% 감소하였고, 지방정부의 예산제안서상에는 지방정부 건설투자가 3.0% 감소하였음. 이상을 감안하면 정부의 건설투자는 2007년에 7.5% 감소할 것으로 보임
- 2008 회계연도 예산제안을 위한 길라잡이를 보면, 정부의 건설투자는 2007년 투자의 97%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음. 여타 요인들까지 감안하면 2008년의 정부 건설투자는 8.2% 감소할 것으로 보임
- 2006년에 수립된 경제재정 개혁 프로그램은 2011년까지의 계획으로, 이에 따르면 매년 공공투자 규모를 1%~3%씩 감소시킬 예정임. 2007년 9월에 출범한 후쿠다 내각도 건축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며, 향후의 정부 건설투자는 감소하거나 정체될 것임

- 민간기업의 자본지출이 19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민간의 실질 비주택 건설투자는 2007 회계연도에 4.1% 증가하고, 2008 회계연도에 4.8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비주거용 건물 착공면적은 2007 회계연도에 0.5% 증가하고, 2008 회계연도에 3.4% 증가할 전망이다
 - 비주거용 건물 중에서 사무실용은 2007 회계연도에 4.0% 증가하고, 2008 회계연도에 6.9% 증가할 전망이다
 - 도매용 건물은 2007 회계연도에 5.7% 증가하고, 2008 회계연도에 0.1% 감소할 전망이다
 - 공장용 건물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여 2007 회계연도에 4.9% 감소하고, 2008 회계연도에는 6.4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공장, 도매센터, 물류창고 등은 전반적인 경기변동과 동행함
 - 사무실, 학교, 병원 등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
 - 병원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고령화가 진행되면 건설투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
- 최근의 건축기준 강화로 주택 착공면적은 2007 회계연도에 6.6% 감소할 것으로 보임
 - 자가주택의 착공면적은 7.9%, 차가주택의 착공면적은 4.6%, 아파트의 착공면적은 9.8% 감소할 것으로 보임
- 지가, 이자율,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공급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베이비붐 2세대인 Y세대와 그 뒤를 잇는 세대들의 주택구매 욕구가 강하므로 2008년에는 2007년도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보임
 - Y세대가 30대를 구성하는 동안 주택 착공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, Y세대가 30대를 넘기는 2010년부터는 주택 착공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- 일본의 건설산업은 최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. 버블붕괴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, 입찰 비리 및 장부 조작 등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음
 - 2006년의 건설투자는 1992년의 최고치에 비해 60% 수준이나, 건설업체는 12.8%만 감소했고, 건설근로자는 18.4%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황임

- 이런 상황에서 과당경쟁과 저가 입찰, 덤핑 수주로 인한 안전과 품질 하락,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강압 등의 현상이 발생함

【그림 3】 일본 건설업체 및 건설 근로자 변화 추이



- 건설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전 산업의 평균 경상이익률이 4.0%이고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이 5.5%인데 비해 건설업의 경상이익률은 2.4%임
 - 전체 건설업체 중 60%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금 1천만 엔 이하 건설업체들의 경상이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, 이로 인해 건설업의 평균 경상이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
- 공공 건설투자의 감소로 건설업체의 부도가 증가했다가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들고 있으나, 지방의 건설업체들의 부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

3. 일본 건설산업의 정책방안

● 일본 정부의 대응방안

-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입찰제도와 하도급 시스템을 투명화하고 있으며, 과당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, 기술 및 사업관리 능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건설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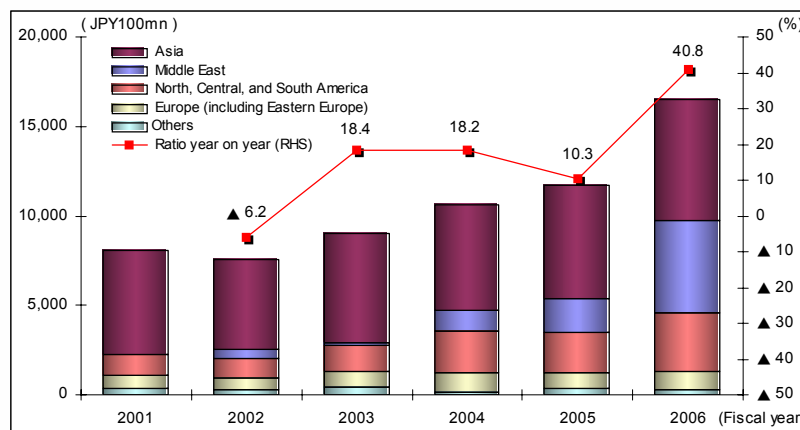
● 노동생산성 제고방안

- 홋카이도의 국토교통국은 2005년과 2006년에 홋카이도 지역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‘1일 응답(One Day Response)’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바 있음
 -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‘1일 응답’ 방식을 적용해 가고 있음
- ‘1일 응답’ 방식이란 발주자나 사업관리자는 시공업자의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1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고 직접 응답이 어려우면 언제 답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야 함
 -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시공업자가 발주자나 감리자의 불필요한 눈치를 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공기를 단축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였음
- 시범사업 이후에 시공업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발주처의 신속한 응답과 공사를 위한 현장준비, 보다 엄밀한 사업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며, 결과적으로 공기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
 - ‘1일 응답’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이 증가할 경우 발주처 공무원들이 모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

● 건설업체들의 대응방안

- 건설업계에서는 대형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주물량 중심에서 수익을 중시하는 경영 전략을 취하는 한편 해외건설의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음

〔그림 4〕 일본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 동향



● 기업의 사회적 책임 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

- 일본 정부와 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
-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양질의 건설상품 생산, 이윤을 극대화하고 조세 납부, 환경 보전, 일자리 창출,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등과 같이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됨
- 일본건설경제연구소(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Economy: RICE)에서 건설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한 결과, 건설업체들의 65%가 양질의 건설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
 - 그러나 고유한 건설생산활동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
-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건설경제연구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평가 항목을 건설업체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
 - 다만 건설업체의 규모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규모별로 평가 방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며,
 - 동 연구소에서는 주 시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을 건의함

● 일본건설경제연구소(RICE) 히로시 오시마 연구위원

● 일본건설경제연구소(RICE) 토시로 마츠시타 상무

● 일본건설경제연구소(RICE) 타카야스 마츠우라 상무

● 국토연구원 SOC·건설경제연구실 김민철 책임연구원(정리)

■ 본 브리프는 내용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16차 한일건설경제위크숍의 주제발표 내용을 수정·보완한 것임